**제9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020.3.15**

◎ 찬양 : 찬송가 28장(통일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 사도신경

◎ 아이스 브레이킹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 말씀 속으로

주제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장 30~33절).

**말씀 펼치기**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농경 기술이 발달 하지 않았고 로마의 식민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조세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근근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마 6:31).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그들 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계의 문제로 염려한다면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마 6:28∼30).

우리도 언제든지 생활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마 6:32).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3).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고 생업과 관련된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Q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되돌려 받을 자가 없습니다(욥 1:21). 따라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느냐 마느냐의 여부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주실 것입니다.

Q :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나요?

◎ 삶 속으로

1.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하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또는 현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구역원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문제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 송 집사님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사회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송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봉사, 회사에서는 전도에 힘썼던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전만큼 봉사를 할 수도,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기도와 고민 끝에 송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 ‘요즘 자주 만나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 결단과 기도**

**결단의 고백**

·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기로 결단합니다.

**통성기도**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하며 주저앉기보다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옵소서. 저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들도 지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보다 저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관련 성구**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장 6∼7절).

·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편 4∼6절)